

# G-Welfare Weekly Report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OECD 사회통합지표가 보여주는 각박한 한국 사회

##### 01 주요 내용

-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OECD 34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계는 10점 만점 중 0.2점으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 매우 낮음
  - 사회통합지표는 11개 영역과 그에 따른 세부 하위지표들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점수(0부터 10까지)로 측정
  - 한국은 교육(8.0), 일자리(7.7), 개인적 안전(7.6)이 높고, 상대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5.0), 삶의 만족(3.3)이 낮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0.2)는 여타 영역들에 비해 가장 낮음
- 사회적 관계는 “만약 당신이 곤경에 처했다면, 당신이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조사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의 비중을 의미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수준〉

스위스	덴마크	독일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터키	칠레	멕시코	한국
95.8	95.0	93.6	92.0	91.5	91.0	90.0	88.5	87.3	86.1	85.0	76.7	72.4

- 우리나라는 연령별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차이가 크고, 세대갈등 정도도 높은 편
  - 15-29세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는 93.26%로 OECD 평균(88.0)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50세 이상은 60.91%로 36개국 중 가장 낮아 연령별 격차가 32.35%p로 매우 심각
  - 5·60대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적은 것은 주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친구나 가족에게 소홀한 탓
  - 세대갈등\*도 조사대상(2천 명)의 50.1%가 ‘심하다’ 고 인식하였고, 연령별로는 30대(3.60점)와 60대(3.58점)가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는 개인적 차원에서 물질적 지원 확보는 물론, 지지체계로서 건강과 사회참여 등에도 중요한 요소하며,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넘어 규범과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적 연대 형성의 바탕이 됨을 고려한 정책 추진 필요

##### 02 경기도 시사점

- 사회적 관계의 회복·강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호혜성을 바탕으로 이웃·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지원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복원 프로그램” 을 확대·시행
  - 민선 6기 핵심과제인 따복공동체 사업을 지역사회와 개인 간 소통과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는 영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마을 또는 통단위로 주민이 함께 모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협동형태의 “新 두레” 를 활성화
- 세대갈등 최소화 일환으로 청년-고령자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되, 청년은 신규 일자리 발굴을 중점적으로 하고 고령자는 기존 일자리 연계를 강화

\* ‘OECD 사회 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단위: %

\*2015. 국민대통합위원회, 「2015년도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2015.

\*예) “청년과老하우에 취하다” 2016년 경기도 인턴(경기복지재단 소속) 아이다어 최은수상

## 2. 2017년 최저임금시급 전년대비 7.3% 인상된 6,470원

### 01 주요 내용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으로 의결(2016.7.18.)
  - 최저임금은 '16년 6월말 100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을 4.1%와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중간값인 3.7%,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전년대비 7.3% 인상된 6,470원을 2017년 시급으로 결정
  - 최종 결정된 2017년 월 환산액은 1,352,230원으로 전년대비 91,960원이 인상
  -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소 14.4%(210만 명), 최대 17.4%(336만 명)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
- 매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액은 인상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사각영역 등 문제점들은 잔존
  -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받는 계층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체 근로자(1,923만 2천명)의 13.7%에 해당하는 약 264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2016년 3월 기준) 사각영역이 존재
  - 24세~54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5~10% 수준인 반면, 25세 미만은 28.5%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로 나타나는 등 청년계층에 대한 정책 사각 현상은 심각
  - 최저임금액 결정 기준 및 원칙의 부재, 공익위원 주도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최저임금 결정 관련 구조적인 개선도 필요
-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 제약 및 생활여건 충족의 기능 미흡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단체별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운영
  -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으로 실질적 생계 보장의 성격이 강함
  - '16년 기준 경기도의 생활임금액은 시급 기준 7,030원으로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안산시, 의왕시, 성남시, 수원시, 이천시 등의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시급 단가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6,600원~7,040원의 범위에서 운영
  - 생활임금의 주요 대상은 현재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및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

\* 김유선(20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2016.3)를 중심으로

### 02 경기도 시사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임금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된 합리적 생활임금액 제시
  -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균형기준 연구를 토대로 산출된 적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항목과 비용을 토대로 31개 사군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액 제시
  -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필수 항목의 Fair Charge\* 공시를 통해 생활임금액 산정에 대한 객관성 및 지역의 특수성 반영
-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최저임금 한계 보완 측면에서 지속적체계적인 생활임금 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 현재 조례 등 지방자치법규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영역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여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제한적임
  - 생활임금제의 지역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 수립(1단계 공공영역 → 2단계 민간위탁 영역 → 3단계 민간영역)
  - 생활임금 추진에 따른 사후 평가를 통한 객관적 성과 검증

\*Fair Charge (표준이용료) 영역별 공시되는 표준 이용요금

#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 1.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년까지 20곳으로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구현을 위해 중앙-지방, 공공-민간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시스템을 구성한 대표적 정부3.0 사례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관련 기관들의 하드웨어 통합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 업무를 한 번에 제공하는 민관협력 모델
  -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주민센터(시군), 새일센터(여가부) 등 기존에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관련 기관이 공간적 통합을 바탕으로 한 곳에서 통합서비스 제공
- 경기도에는 전국 최초로 개소한 남양주 센터를 비롯하여 총 11곳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설치·운영 중임
  - '14년 2곳(남양주·동두천), '15년 8곳(김포·구리·수원·파주·의정부·화성·오산·안양)에 이어 지난 26일 성남 센터가 개소
  - 센터별로 최소 3개(오산)에서 최대 8개(동두천·파주)의 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인력은 최소 20명(김포)에서 최대 110명(수원) 수준

<표 1>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현황('16. 7월)

구분	복 지		고 용				금 용	비 고 (입주기관 현황)
	복지지원팀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자활센터	기타		
남양주	○	○	○	○	○	×	○	6곳, 62명
동두천	○	○	○	○	×	재난안전지원센터	○	8곳, 28명
김 포	○	○	○	○	×	하나센터	○	6곳, 20명
구 리	○	○	○	○	×	×	×	4곳, 32명
수 원	○	○	○	○	○	시니어클럽	○	7곳, 110명
파 주	○	○	○	○	○	중장년센터 장애인고용공단	○	8곳, 51명
오 산	○	○	○	○	×	×	○	3곳, 63명
화 성	○	○	○	○	×	×	○	4곳, 35명
의정부	○	○	○	○	×	중장년센터	○	6곳, 21명
안 양	○	○	○	○	○	×	×	4곳, 96명
성 남	○	○	○	○	×	×	○	5곳, 60명

\*○: 입주기관  
×: 미입주기관

-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내년까지 20곳으로 확대설치 예정
  - 도는 센터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총 7곳(성남·용인·평택·고양·부천·이천·광주), 내년까지 총 3곳(양평·포천·하남)에 새로 설치 예정\*
  - 이외에도 미설치 지역 중 광명·안산·시흥·안성은 전환형, 군포·과천·의왕·연천·여주는 신설형으로 향후 설치를 계획 중임
- 상호연계나 정보공유 없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서비스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협업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
  - 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관련 기관을 센터 내에 공간적으로 모으는 물리적 조치 외에도, 안정적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네트워크 확대가 필요
  - 예를 들어 지역주민과 인접한 거리에서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업 강화할 경우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확대 효과

##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따뜻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 청 : 8. 1. ~ 8. 12.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li> <li>내 용 :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 보급</li> <li>대 상 : 도내 저소득가구 중·고등학교생 3,000명</li> <li>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267-9333)</li> </ul>

# 03 FACT CHECK

## 인정사정(人情事情) 없어진 한국사회 - 정 많던 한국인은 어디로 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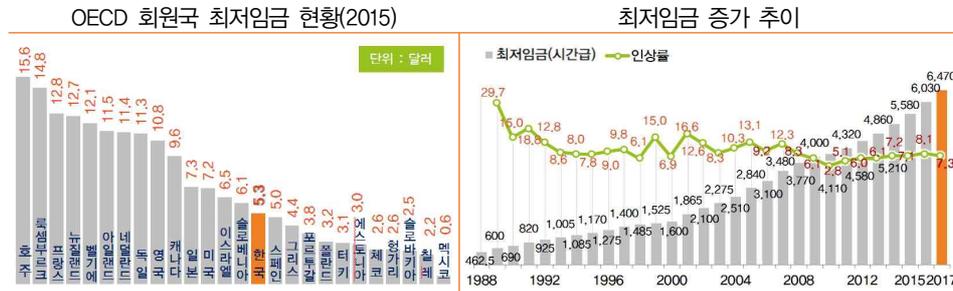
- 2015년 OECD 사회통합지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중 10명 중 3명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2016.7.24.)
- 한국인들의 고립감은 높은 자살률,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도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
  -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2년 동안 OECD 1위를 차지, 자살사망률은 매년 증가해 2011년 31.7명까지 증가 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작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며,
  - 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약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혐오논쟁도 증가 추세
- 상부상조를 중시하던 과거 우리사회는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 비정규직 등 열악한 고용구조, 과도한 노동시간(강도) 등으로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사회로 변화
  - 관련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친구를 밟고 이겨야 인정받는 교육", "우리나라는 정이 많다? 6.25때 얘기", "자신들이 힘들 땐 내가 친구이고 가족이지만 내가 힘들 땐 모른척"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 양극화 사회에서 빈곤을 벗어나 열심히 살기위해 더 외로워지는 것이 한국의 현실
- 사회적 지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려울 때 삶을 지탱하게 하는 안전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의 약화는 개인적 불행 넘어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짐
- OECD 회원국 중 사회통합 점수가 높은 노르웨이(8점) 덴마크(7.9) 등 북유럽 국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의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이를 통한 연대의식의 강화가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2016).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대일리한국, 7.25

# 04 통계로 보는 복지

##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단위 : 원, %

-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26개국이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15위를 차지
  - 상위권에는 유럽과 오세아니아 대륙이 주로 해당되며, 동유럽 남미가 하위권을 차지
  -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독일은 시간당 8.5유로로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였으며,
  - 영국은 '인간다운 삶' 의 보장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여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

# 05 해외동향

## 해외 근로복지제도\*

근로복지제도는 단순히 노동력의 확보 및 유지라는 부가적 성격을 떠나 근로자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기업을 넘어 국가의 정책과 사회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침

- 미국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주로 IT기업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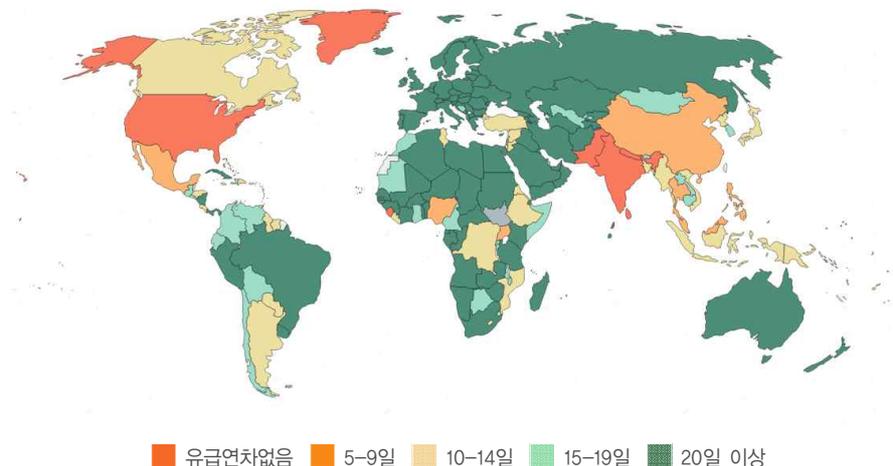
기업명	복지 혜택
어도비 (Adobe)	여름 1주일, 겨울 1주일 회사 전체가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도비(Adobe)는 12월 중에서 1주일, 그리고 여름 기간 중 1주일은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데, 이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조치</li> <li>매년 날짜가 달라지는데 2016년에는 7월 4일-8일이 여름 휴가, 12월 22일부터 1월 22일까지 겨울 휴가이며 일주일에 24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li> </ul>
세일즈포스 (Salesforce)	직원들의 안전한 출장 및 휴가 여행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컴퓨팅 업체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직원들이 어느 곳으로 출장 및 여행을 가든지 안전한 여행에 필요한 지식을 회사 내 담당 팀을 통해 제공</li> <li>안전여행서비스는 항공편 추적, 호텔 추천, 안전여행 지침, 전세계 여행지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 지역으로의 여행 시 상세한 안전 브리핑, 긴급 여행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며,</li> <li>여행에 가족을 동반할 수도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통화 한 통이면 의료, 안전 및 보안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도움 제공</li> </ul>
피더블유씨 (PwC)	직원들의 학자금 상환을 위해 865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15년 미국 대학교 졸업생들의 평균 학자금 대출금이 역사상 최대치(졸업생 한 명 당 평균 35,000달러 정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학사 학위 취득자의 71%가 학자금 대출금을 갖고 졸업)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li> <li>이러한 상황에서 회계법인 PwC는 직원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6년간 총 7200달러(865만원)를 지급</li> </ul>
넥스트점프 (Next Jump)	탁월한 직원 건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존스홉킨스대 선정 가장 건강한 3대 일터 중 하나인 넥스트점프는 IT업체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직원이 회사를 돌볼 수 있다" 는 한국계미국인 CEO 찰리 김의 철학이 직원 건강 프로그램과 기업 문화에 반영</li> <li>넥스트 점프의 건강 프로그램에는 사내 피트니스센터(암벽등반, 야구타격연습장, 러닝머신, 바이크, 헬스 기구 등 포함), 레크리에이션실, 피트니스 강사, 개별 트레이닝,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여름 캠프, 삼시세끼 건강한 식단, 건강 간식 등이 포함</li> <li>Fitness Challenge를 통해 매주 팀별 경쟁이 이루어지고 경쟁에서 이긴 팀은 와우 포인트(1,000달러 상응)를 얻게 되는데, 이 포인트는 수백 개의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li> <li>유수 인재들의 넥스트 점프 지원 폭발적 증가, 40%였던 이직률이 한 자릿수로 감소, 지난 3년간 전자상거래 판매 연평균 성장률이 30%에서 120%로 증가</li> </ul>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세계 각국의 근로복지제도를 살펴봄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업무 저해요인(가족문제, 법·재정문제, 약물남용,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 제공되는 사회·심리적 서비스로 결근과 비효율근무 감소, 근로자 사고 및 배상 청구 감소, 근로자의 잔존율 증가, 노동 분쟁 감소 및 신건강과 약물사용 관련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의료비용 감소 등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큰 직업군에서는 외상 후스트레스장애, 약물오남용, 우울증과 관련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

- 스웨덴은 뛰어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유연한 근무형태와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추어 근로자의 낮은 이직률과 높은 충성도에 기여하고 있음
  - 세계 최대 규모 가구 유통업체인 이케아(IKEA)는 2015년에 이어 2016년 다시 한 번 란드스타드 상(Randstad Award)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스웨덴 근로자 및 구직자가 선정한 가장 매력적인 근무지를 의미, 장기적인 직업안정성, 경력진전 기회 및 내실 경영 면에서 높은 점수 획득
  - 시장 평균 수준에 맞춘 임금과 더불어 여타 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뛰어난 복지 혜택은 없지만 스웨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장이자 이직률도 낮은 이유는 이케아의 강하고 역동적인 기업 문화 덕분으로 기업 문화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임금 지급과 같은)보상으로서 기능
  - 지위와 관련된 모든 표시를 제거 등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입사 초기인 젊은 직원들에게도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
  - 현장 경험 중시 및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승진 기회, 책임을 위임하는 문화 그리고 주인 의식 등은 직원들의 낮은 이직률과 높은 충성도로 이어짐
- 프랑스는 근로자가 질 높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 일수 보장 및 여행 지원과 같은 국가적인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5주 유급휴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가), 런치 바우처(구내식당이 없는 회사에서는 회사 외부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바우처 제공), 출퇴근 통근비용(보통 2등석 열차 시즌 티켓 혹은 이에 상응한 현금) 및 주 35시간 근무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및 보장
  - 이밖에 체크바캉스(Cheque-Vacances)는 1982년부터 프랑스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 경비를 공동 부담하고 가입 근로자들에게는 관광 시설 할인 및 우선 이용 관리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휴가문화의 선진화와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
  - 올해 프랑스 정부에서는 퇴근 후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 전송을 금지하는 등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disconnect)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고 퇴근 후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
- 근로복지의 대표적인 제도인 연차휴가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식과 회복 기간을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의 동기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유급연차휴가를 부여받을 권리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페루, 브라질, 쿠바, 알제리, 리비아, 핀란드 등은 30일의 가장 긴 유급연차휴가를 제공하며, 그 다음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28일, 한국 15일, 일본 10일, 중국 5일의 휴가를 제공
  - 마지막으로 미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급연차휴가가 없는데, 미국의 경우, 유급연차휴가는 기업의 재량에 맡겨진 상태이며, 법률로 의무화된 것은 일부 주에 국한되어 있음

〈전 세계 유급 연차휴가 현황〉



[자료출처: The WORLD Policy Analysis Center '2014 The Adult Labor Database' ]